

趙州和尚因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無門曰，參禪須透祖關，妙悟要窮心路絕。祖關不透，心路不絕，盡是依草附木精靈。且道，如何是祖關。只者一箇無字，乃宗門一關也。遂目之曰禪宗無門關。透得過者，非但親見趙州，便可與歷代祖師，把手共行，眉毛厮結，同一眼兒，同一耳聞，豈不爽快。莫有要透祖底麼，將三百六十骨節，八万四千毫髮，通身起起，參透無字，晝夜提撕，莫作虛無會，莫作有無會，如吞了箇熱鐵丸相似，吐又吐不出，瀉盡從前惡知惡覺，久久純熟，自然內外打成一片。如臣子得夢，只許自知，驚然打發，驚天動地，如奪得將軍大刀入手，逢佛殺佛，逢祖殺祖，於生死岸頭，得大自在，向六道四生中，遊戲三昧，且作麼生提撕，盡平生氣力學箇無字，若不聞斷，好似法燭，一點便著，燼了，狗子佛性，全提正命，纔涉有無，喪身失命。

*어느 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없다!"

*나 해개가 말한다. "선을 공부하지만 조사가 세워놓은 관문을 풀어야 하고, 깨달음을 얻자면 모든 생각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조사의 관문이 풀리지 않고, 생각의 길목이 차단되지 않으면, 너는 풀이어나 담뱃에 기생하는 허깨비

한형조 무문관 탐방

趙州의 개



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를 얻고, 삶의 여섯 도정(六途)과 생명의 네 형태(四生)를 유유하게 다스리는 기쁨(遊戲三昧)을 얻는다.

그럼, 대체 '없다'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 심신의 기력을 끌어모아 이 '없다'에 집중하여 흐트러지거나 끊기는 법이 없으면, 촛불에 문득 불이 켜지듯 그렇게 소식은 찾아올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개의 불성, 온전한 제시 분명한 가르침이라,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네 목숨은 간대 없다.

무문관의 각 칙(則)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1. 깨달음의 기원이 된 고승의 사례(case). 2. 이를 둘러싼 해개의 논평과 해설(評唱). 3. 그런 다음 사실을 덮고 노래로 마무리(頌). 이 가운데 2와 3이 순수 해개의 작품이라 할 것인데 그는 선사답게 되도록 말을 아낀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제1칙만은 예외이다. 사례 부분을 한 줄로 처리하고, 나머지 공간을 온통 자신의 입설로 감당했다. 해개는 무자(無字) 화두를 통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사람이 아니라 애정과 감회가 남달라 수백이 없다. 그래서도 글에 힘이 있고, 간결하며, 또한 친철하

시골의 논둑이나 밭 길을 걷다 보면 풀밭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새끼줄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는 수가 있다. 새끼줄을 뺐을 때 잘못 알고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는 수가 있다.

보이는 물건이나 들리는 소리를 잘못 알아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불교유식사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사실을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에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삼성(三性)이 있다고 한다. 변계소집성은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어 분별하는 잘못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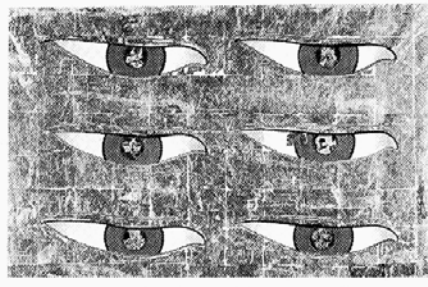
썩은 새끼줄이 염주로도 보일 수 있을 터이고 나뭇가지로도 보일 수 있을 터인데 어째서 꼭 뺐으면 보였을까.

두가지 대안이 가능한 것이다. 흔한 대안으로는 "그야 당연히 새끼줄이 뺐을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니까" 하는 경우이다. 부연하면 썩은 새끼줄이 뺐으로 보인 이유는 새끼줄 자체가 염주나 나뭇가지 보다는 뺐의 모습과 더 가까우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가끔의 대안은 이와는 좀 색다르다. 새끼줄이 뺐인줄 착각한 이유는 "뺐이 새끼줄을 덮어서가 아니라 새끼줄을 보고 뒤로 도망친 사람이

삼성(三性)

法數로 배우는 불교

<13>



◇손연철 작 '천수천안관세음'

뺐을 마음속에 미리부터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다"는 경우이다.

이 말을 다시하면 아무리 썩은 새끼줄이 뺐을 덮었다더라도 그 새끼줄을 바로 본 사람이 뺐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뺐이라는 형상도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이다. 이 두가지 대답에 불교는 역시 뒤에 나오는 대답을 지지한다. 불교의 입장에서 중생들이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판단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해 나타

보니 이번에는 새끼줄이 뺐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착각에 의해 놀랐던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는 걸음을 계속했다고 하자. 잘못을 잘못인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한 마음, 새끼줄을 뺐으로도 염주로도 보지 않고 새끼줄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 보는 마음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원성실성은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 일체존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마음이요, 해탈의 마음이다. 중생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실을 가리는 아견과 집착 무지 등에 의해서이다.

의타기성에서 일어난 변계소집성의 잘못을 완전히 알고 원성실성을 회복하는 공부야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일이며 중생의 삶을 보살의 삶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는 자기 자신 어떠한 생각도 고정화시키거나 절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분별·집착·망상 참모습 보는 눈가려

난다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뺐을 없고 항상 염주를 그리워 했다면 그 새끼줄을 염주인줄 알고 오해라 집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중생들이 내리는 판단은 늘 그 판단 이전에 자신의 마음이 조건이 되어 일어나는데 마음의 이러한 속성을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한다.

의타기성은 물질과 현상 등의 나타남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되었던 온갖 가치들의 반영에 의지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새끼줄을 뺐으로 본 것이나 염주로 본 것이나 이것은 모두 제 마음의 그림자며 소산이다.

그러나 새끼줄이 뺐인줄 알고 놀라 물러섰던 사람이 눈을 부비고 다시

이제 열 (유마선원장)

'없다' 이 한마디로 훈련하라

"미물도 불성을..." "허깨비에 흘러있기에..."

나 다름없다. 그럼, 대체 조사의 관문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없다' 이 한마디가 바로 선의 제일 관문이다. 그래서 선종무문관이다. 이 문을 뚫고 나가면 조주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물론, 역대와 여러 조사들과 손에 손잡고 한 자리에 어울려, 그들이 보는 것을 너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너도 들을 것이니 이 어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라.

이 관문을 뚫고 싶지 않은가. 삼백 육십 혼신의 뼈마디와 팔만 사천 혼신의 털구멍을 의문의 덩어리로 뭉쳐, '없다' 이 한마디에 매달려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성성(惺惺)히 여 일(一如)하게, '없다' 를 공허나 결핍으로 여기거나, 또 유(有)와 무(無)의 상대적 공간에서 얽으려 들지 말라. 시뻘겍게 단 쇠덩이를 삼킨 것처럼, 아무리 토하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외문의) 불덩이로 그릇인 의 그릇인 지식, 잘못된 공부를 말끔히 떨쳐내라. 이 훈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너의 마음은 점점 익어 어느날 안과 뺨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흡사 병어리가 곧 풀과 같다. 스스로는 알되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줄 수 없는 그것. 그 소식이 터지면, 하늘을 놀래키고 땅을 울리며, 관우장군의 청룡안일도를 뱉어 권듯, 부처가 막아서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막아서면 조사를 죽인다. 삼과, 죽음을 갈릴길

다.

이번 칙(則)의 주인공 조주(趙州 778-897)는 백년을 무르익은 선장이라 고불(古佛)로 불린다.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상상하고 새로운 것, 그래서 당시 자신이 이 호칭을 그리 탐탁해 하지 않은 듯하다. 본분 소식의 부사의(不思議)를 깨우쳐주기 위해 고양이 목을 치기까지 한 남정(南泉普願 748-834)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깨쳤다. 친촌만학 여러 선장들을 심방하며 성태(聖胎)를 장양(長養)타가 늘그막에 조주의 관음원(觀音院)에서 학인들을 제정한다. (조주록(趙州錄)은 (임제록(臨濟錄))과 달리 차분하고 일상적이어서, 별다른 기벽이나 기특(奇特)을 느낄 수 없다. 그의 성품과 기질 탓일 것이다.

토를 달 공간이 많지 않다. 사례가 너무 간략하여 갈피를 못 잡고 어마지무하고 있을 사람들에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조주록)에 실린 후반부만 덧붙여 주기로 한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릇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미물이라 해도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없다'니오" 그러자 조주는, "네가 딱하게도 '불성'이라는 허깨비에 흘러 있기에 내가 정심차리라고 위통수를 친 거지." (僧云, 蠢動含靈皆有佛性, 狗子因甚無佛性, 爲他何業識性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한 설화에는 그의 수감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많이 남겨져 있다. 젊은 시달타 왕자는 단대비니 왕국의 공주 고바에게 구혼했다.

이때 경쟁 상대가 5명이 있어서 선발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시험 과목은 쓰기, 씨름, 궁술, 달리기, 수영 그리고 수학이었다. 당연히 모든 과목에서 일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시험하는데 대수학자 알레시와 수의 수감각이었다.

이때의 문제중의 하나가 "百고터(Koti)(=10⁶)보다 큰 수를 만들기를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다.

그는 (10⁶) x (10⁶) (10⁶ x 10⁶) x (10⁶ x 10⁶)..... 라는 식으로 10¹² 즉, 1 뒤에 0이 421개 붙는 수를 생각했다.

다음 문제는 "입자 7개가 극미인 진(塵)이 되고 이 진을 7개 모아 (7), 그것을 또 7개 모아 날아가는 정도의 애(埃)(7), 그것을 7개 모아 토끼의 발자국 한 개 정도의 크기 (7)⁷....." 이런 식으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부처님 티끌·먼지등도 수로 표시 '지수' 이용 數의 무한사상 나타내

4 x 10¹⁰ x 4 x 2 x 12 x 7¹⁰.....

물론 시달타 왕자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 수를 안다는 것은 '일, 이, 삼, 사...' 수와 '100은 10의 10개'라는 식의 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어린이들은 물건을 보고 한 개, 두 개 셀다가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많다'고 표현하고 그 이상은 '무지무지하게 많다'라는 식으로 되풀이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 오지의 원주민 사이에서는 '하나, 둘, 많다'는 수밖에 모르는 부족이 있다. 삼 이상의 수에 대한 이름(수사)도 이들 수의 관계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고대 문명국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수의 범위는 현실적인 쓰임새의 범위와 관계가 있으며 고대 문명의 정상을 누린 회합에서는 '만' 정도 까지의 수를 알고 있었다. '만' 정도의 수도 상당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인류 사상 최고의 천재 회합의 아르키메데스는 전세계 모델의 수를 셀하는 것을 시도하고 엄청난 수사와 수를 밝혔다.

아르키메데스는 1만의 1만배, 10000 x 10000 = 100000000 = 10⁸ 즉, 1부터 1억 미만까지의 수를 최초의 '오クタ드의 수' (number of the first 'octad')라고 불렀다. 제 2의 '오クタ드의 수'는 1억부터

10⁸ x 10⁸ = 10¹⁶ 미만까지의 수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10¹⁰⁰⁰⁰⁰⁰⁰⁰이라는 수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1에서 이 10¹⁰⁰⁰⁰⁰⁰⁰⁰까지의 수를 최초의 '페리오드의 수' (number of the first 'period')라고 불렀다. 또 10¹⁰⁰⁰⁰⁰⁰⁰⁰을 바탕으로 제2의 '페리오드의 수' (=10⁸ · 10¹⁰⁰⁰⁰⁰⁰⁰⁰), 제3의 '페리오드의 수' (=10⁸ · 10¹⁰⁰⁰⁰⁰⁰⁰⁰), ...와 같이 얼마든지 큰 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의 크기를 차례로 나타내어 갈수록 전세계에 흩어진 모델의 수는 최초의 페리오드 중의 제 7의 오クタ드의 1000단위와 같은 수, 즉 10¹⁶보다 적음을 아르키메데스는 밝혀낸 것이다.

석가모니의 수 계산 방법도 본질적으로는 지수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와 같다. 여기에는 수의 무한이라는 사상이 깃들여 있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수의 명칭, 즉 수사를 새로이 만드는 데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명칭이 있는 수의 구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그 존재가 보장된다. 바꾸어 말하면 기호문자는 수열의 무한성이란 것을 뚜렷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천재는 '무한'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터 사용을 피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무한과 유한이 분명히 구별되고 그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무한에 도달할 것임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최첨단 고품질의 전사방식!

2541.5.14 사일초파일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2541년 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부처님 그 깊은 자비심을 더욱 뜻깊게 전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불교위원회 공식지정업체인 불교이벤트하우스가 행사용품에 세심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행사를 위해, 고품질의 전사방식으로 인쇄된 불축현수막, 풍위있는 불교스티커, 등걸리표, 만복기 등을 불교위원회가 지정된 EIP에 의거하여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 불교이벤트하우스에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행사용 아저, 달 등의 구조물은 상담바랍니다.

불축현수막

■ 불축행사용품가격표

| 품명 | 규격 | 가격 |
|---------|----------------------------|-----------------------|
| 현수막 | 90x600cm | 40,000원 |
| | 90x800cm | 50,000원 |
| | 90x1,000cm | 60,000원 |
| | 90x1,200cm | 80,000원 |
| 풀배너 | A SET(2종) | 40,000원(기체대별매) |
| | B SET(4종) | 80,000원(기체대별매) |
| 만복기형 배너 | 1SET(5개/2m) | 20,000원 |
| 깃발 | 50개 30,000원 · 100개 50,000원 | |
| 어깨띠 | 9.5x180cm | 2,000원 |
| 스티커 | 1SET(15종) | 1,500원 |
| 차량용 스티커 | 개 당 | 300원 |
| 등걸리표 | 100개(소 20cm) | 1,000원 |
| | 100개(대 30cm) | 1,500원 |
| 버튼 | 개 당 | 300원 |
| 타이슬링 | 개 당 | 1,500원 |
| 풍선 | 개 당 | 300원 |
| 셔츠 | 종류별 | 6,000원/8,000원/10,000원 |
| 질퍼 | 벌 당 | 35,000원 |
| 조끼 | 벌 당 | 30,000원 |
| 모자 | 개 당 | 3,000원 |

● 현수막제작시 단체명 또는 사칭명을 삽입해 드립니다.
● 주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용품이 납품가능합니다.

불교이벤트하우스에서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교내의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시행
- 각종 종교행사 이벤트 기획 시행
- 사회전통 행사 기획 시행

2)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사찰별 EIP 기획/제작
- 캐릭터 개발
- 사찰 이미지 부각 공익 광고물 기획/제작 (선도신문/잡지의 기획제작, 사찰용 각종 인쇄물 기획제작)
- 불축현수막, 행사용 각종 현수막, 배너, 대형 괴물형틀 제작
- 육내·외 광고물 기획 제작 관리,
- 신문 잡지광고 제작 및 포스터 카탈로그 제작

3) 불교서적 출판
- 불교서적 편집 출판
- 불교관련 전자서적 제작 (CD-ROM TITLE, VCR)

4) 컨설팅
- 사찰의 범용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법률고문 위임)
- 사찰의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세무/회계고문 위임)
- 사찰의 건축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건축고문 위임)

불교이벤트하우스
불교계 Total Consulting Group
문의 및 주문처: 3785-3381(대)

본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22 삼림빌딩 3층 TEL: (02)3785-3381-4 FAX: (02)3785-3385 인사동지사: 서울시 중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TEL: (02)733-4277 FAX: (02)733-4279